

2024년

# 《 대한장애인골프협회 》 제1차 대의원총회 결과 및 회의록

❖ 일시: 2024. 01. 27. (토) 13:20 ~ 15:20

❖ 장소: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회의실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424 올림픽회관 신관 1층)



**대한장애인골프협회**

Korean Differently Able People Golf Association

# 《 2024년 대한장애인골프협회 》

## 제1차 대의원총회 결과 및 회의록

### □ 대의원총회 개요

○ (일시) 2024. 01. 27. (토), 13:20~15:20

※ 인근 식당(아라리)에서 오찬 후, 대의원총회 진행

○ (장소)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회의실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424 올림픽회관 신관 1층

○ (참석) 16명 (회장 1, 대의원 15)

회장	송태섭
시도지부 (12)	김윤숙(서울), 손인호(대구), 류영수(인천), 두오균(대전), 최용화(경기), 이호덕(강원), 이치훈(충북), 선인태(전북), 홍동화(경북), 이상훈(경남), 최정수(제주), 백순선(충남 부회장)
위원장 (3)	황택원(선수위원회), 이문형(심판위원회), 서선수(지도자협의회)

※ 【배석】 3명(대한장애인골프협회 사무국장, 과장, 주임)

### □ 주요 내용

#### (1) (보고: 총 6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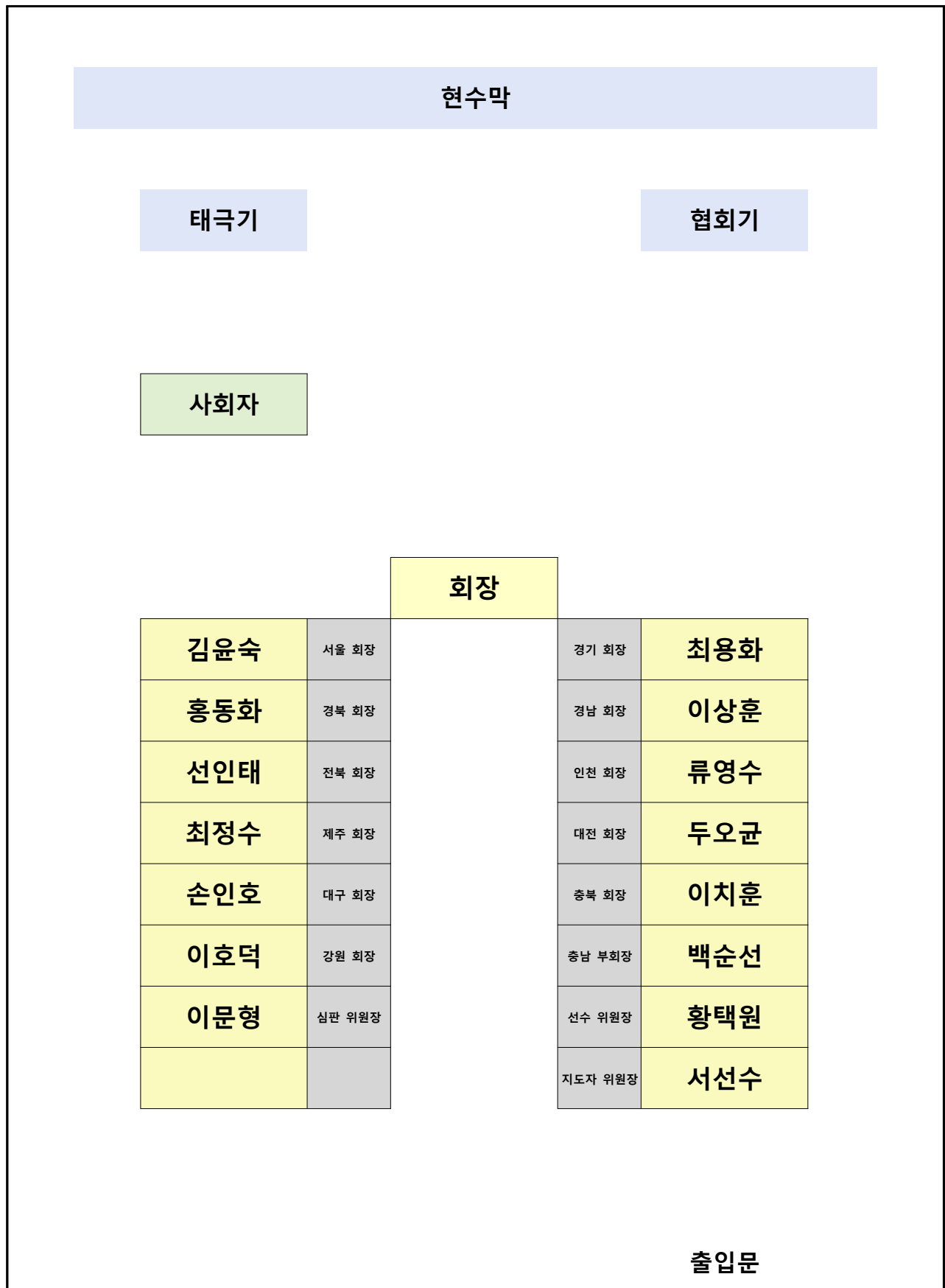
- ① 전차 총회(2023년 10월 7일) 초록 보고
- ② 대의원 및 임원 변경사항 보고
- ③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보고
- ④ 대한장애인골프협회 주요 규정 개정 사항 보고
- ⑤ 등급분류 관련 사항 보고
- ⑥ 전국대회 승인 관련 사항 보고

#### (2) (심의: 총 2건)

- ① 2023년 사업 결과 및 결산
- ② 대한장애인골프협회 임원 선임 권한 회장 위임

※ 출석 대의원 전원 동의로 심의안건 원안 의결 및 폐회

## □ 좌석 배치도



## □ 사진자료

사진1. 오찬



사진2. 대의원총회



# 회의록

- 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대한장애인골프협회 사무국장 박민균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여 주신 대의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도 대한장애인골프협회 제1차 대의원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의례〉

- 사무국장: 개회에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앉으신 상태에서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음향〉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원보고〉

- 사무국장: 오늘 대의원총회는 재적 대의원 20명중 15명 참석으로 정관 제21조에 의거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 제1차 대의원총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무국장: 이어서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 의장: 간단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서 멀리서 참석해주신 대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여러 보고사항과 심의 안건이 있는데 대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검토해 주시고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사무국장: 다음은 보고사항 제1호, 전차 총회 초록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회순에 따라 전차 총회 초록을 사무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사무국장: 전차 총회 초록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전자료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대한 장애인골프협회 제2차 대의원총회는 2023년 10월 7일 토요일, 17:30부터 18:30까지 전남 영암파크골프협회 사무실에서 재적 대의원 19명 중 10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보고안건으로 ①전차 총회(2023년 2월 11일) 초록, ②대의원 및 임원 변경사항, ③2023년 전문체육대회계획 및 예산 변경사항, ④필드골프 등급분류 규정 및 평가 계획을 보고하였으며, 심의안건으로 ①중앙협회 사무국 이전 관련 사항, ②충청북도장애인골프협회 지부 승인에 대한 사항을 출석 대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의결하고 폐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차 총회 초록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 의장: 초록에 잘못 기록 되었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의원: 이의 없습니다.
- 의장: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장: 다음은 보고사항 제2호, 대의원 및 임원 변경사항 보고입니다. 회순에 따라 대의원 및 임원 변경사항에 대해 사무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사무국장: 배부해 드린 안전자료 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3년 10월 제2차 대의원총회 이후 2024년 1차 대의원총회 개최 전일 까지 명기숙 이사, 김학영 이사 총 2명의 이사가 사임하였으며, 새로 선임된 임원은 최용화 부회장, 이상훈 부회장, 조유나 부회장, 김인철 이사, 박혜숙 이사 총 5명입니다. 임원 선임과 관련된 사항은 2023년 2월 11일 제1차 대의원총회에서 출석대의원 전원찬성으로 임원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하여 이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임원 변경사항에 대해 보고 드립니다.
- 의장: 임원 변경사항 보고와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의원: 이의 없습니다.
- 의장: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사무국장: 다음은 보고사항 제3호, 2024년 사업계획(안)·예산(안) 보고입니다.
- 의장: 회순에 따라 2024년 사업계획(안)·예산(안)에 대해 사무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사무국장: 네 지난주 개최된 제1차 이사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 2024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 자료 5쪽입니다. 2024년 전문체육예산은 작년과 동일하게 3,60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대회별 지원 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울산 동천파크골프장에서

개최되는 제2회 울산시장배 전국장애인파크골프대회에 600만원, (2)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경남 김해 슬피파크골프장에서 개최되는 협회장배대회에 1,000만원, (3) 9월 중에 경북 문경CC에서 개최 예정인 하모니 필드골프대회에 1,000만원, (4) 11월 중에 충남 보령장애인파크골프장에서 개최 예정인 최강자전대회에 1,000만원이 지원됩니다. 2024년 예산안 총괄 자료는 안전 자료 5쪽 하단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사업 계획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안전 자료 11쪽부터 22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안전 자료 25쪽부터 22쪽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 의장: 2024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보고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영수 회장(인천): 사무국장님, 저기 충남 회장님이 이임했잖아요. 그러면 최강자전 사업 계획은 직무대행 체제에서 사업 계획서가 들어온 건가요?
- 사무국장: 네 지금 직무 대행하시는 백순선 부회장님 체제께서 보내주신 겁니다.
- 류영수 회장(인천): 직무대행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 사무국장: 직무대행도 통상적 사무를 수행할 수 있고 시도지부에서 대회를 추진하는 것도 통상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회를 준비하고 개최할 수 있습니다.
- 홍동화 회장(경북): 2024년도 사업 계획안에 파크골프등급분류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 사무국장: 파크골프 등급분류의 경우,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그 부분을 넣지 않았습니다. 파크골프 등급분류 같은 경우는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협회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는 내용이고, 필드골프 등급분류 심사는 오는 2월에 저희가 진행할 겁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예산 지원이 예상되지만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은 저희가 자료에 금액을 기입하지 않았습니다.
- 의장: 다른 시도에서 사업계획을 중앙으로 보내면서 예산을 신청할 때 미리미리 다 검토하고 해 주셔야 되는데 안 해주셔가지고 울산 같은 경우도 그래요. 울산시에서 많은 예산을 받아가지고 대회 예산이 충분하지만 계획서를 제출해서 울산대회에 기금이 지원 나가게 됐습니다. 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시도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계획서를 제출하셔서 중앙에서 검토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질문 사항 있으면 좀 받겠습니다.
- 최용화 회장(경기): 제가 4년 차에 접어드는데 해마다 예산이 같습니다. 3,600만원에서 더 늘어야 되는데 늘지도 않고 체육계 자체가 정부 예산이 줄었다고 이렇게만 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체육회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전체적인 예산도 지금 삭감되는 추세인데 이 문제를 갖다가 만약에 대장체 예산이 축소가 안 되는데 우리만 이렇게 담보 상태면 뭔가 우리도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대장체 쪽에 요청하는 쪽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의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 (대한장애인체육회) 총회에서 제가 또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용화 회장(경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아까 3,600만원 예산으로 몇 개 대회를 지원하는데 만약에 올해

추경 형태로 만약에 4월이나 5월 쪽에 우리가 문체부 장관배를 하나 만든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진행이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이게 정권이나 정치 논리 싸움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파크골프가 온 데 돌아다니며 현수막에 골프장을 지어주세요 이렇게 적힌 거 많이 보셨죠? 그죠? 그런데 우리 이제 전문체육으로 돼 있는 대한장애인골프협회가 대회를 이제 중앙회장대까지만 하니까 조금 한 등급 올려야 되니까 이거는 회장님을 설득하든 중앙회 임원분을 설득하든 뭔가 하여튼 사인을 좀 받든지 해서 예산을 받아오던 다른 거를 하든지 좀 압박을 가해 볼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의장: 새로운 부회장님을 오셨으니까 그 활약을 기대합니다. 여기 우리 부회장님이 자주 이 근처로 집이 근처니까 자주 중앙회 사무실도 들르시고 하니까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에 대장체 총회도 있을 거니까 그때 가서 한번 또 자세한 것을 또 건의해 보고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의원: 없습니다.
- 의장: 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사무국장: 다음은 보고사항 제4호, 대한장애인골프협회 주요 규정 개정 사항 보고입니다.
- 의장: 회순에 따라 대한장애인골프협회 주요 규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사무국장: 지난주 개최된 2024년 대한장애인골프협회 제1차 이사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 주요 규정 개정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이사회에서 개정한 규정은 (1)대한장애인골프협회 선수위원회 운영규정, (2)심판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3)지도자협의회 운영규정 개정(안), (4)심판 자격 관리·운영 규정 개정(안), (5)파크골프 운영규정 개정(안) 이렇게 5개의 규정입니다. 선수, 심판, 지도자협의회 이 3개의 운영규정을 대한장애인체육회 관련규정 개정(안)에 따라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고, 대한장애인골프협회 2급 3급 심판자격증 발급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심판강습회 사업의 근거가 되는 심판자격 관리운영 규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실기평가 시, 파크골프 9홀 라운드 평가 점수 50점과 실기이론평가 50점을 합산하여 3급은 60점 이상, 2급은 80점 이상이면 합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존 실기평가는 라운드 평가없이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심판들이 시연을 하고 응시생들은 그에 대한 타수를 적도록 했는데 여기서 혼선이 좀 많이 발생해서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파크골프 운영규정에서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OB판정과 관련하여 OB 선 중앙에서 바라봤을 때 공이 조금만 걸쳐도 인으로 인정한다는 내용과 늑장플레이 관련 내용을 25초 이내에 플레이를 하도록 변경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늑장플레이 관련된 사항은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심판이 해당 선수의 이름을 부르고 '플레이 하세요' 라고 한 시점부터 25초 이내에 플레이를 해야되고 그렇지 않으면 1차 경고, 2차는 벌타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규정개정과 관련된 내용은 안전자료 31쪽부터 44쪽의 내용과 별도로 배부드린 인쇄물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협회 주요 규정 개정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 의장: 주요 규정 개정 사항 보고와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수 회장(제주) : 제가 하나 질문 할게요. 우리가 4인조 단체전 서든데스를 하잖아요. 서든데스 할 때 각 조에서 순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죠. 그냥 원래 순번 대로 치느냐 아니면 새로 정해서 치느냐?
- 황택원 선수위원장: 보통 각 조에서 잘 쳐왔던 사람이 서든데스에서 먼저 쳤습니다.
- 최정수 회장(제주) : 이와 관련된 부분을 파크골프 규정에 새로 만드는 것이 어떻습니까.
- 선인태 회장(전북) : 지금 규정을 여러 번 개정해왔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새 규정을 만들면 또 다른 혼선을 줄 수도 있고 이제 파크골프에 입문하신 분들까지 전달이 될 때까지는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규정을 만드는 건 반대하고 4인 단체전에서 서든데스를 하게 되면 시도 대표자가 그 팀에 1번 2번 3번을 정하고 그 순번대로 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대의원: 네 알겠습니다.
- 의장: 네, 기타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고 안건을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 대의원: 동의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무국장: 다음은 보고사항 제5호, 등급분류 관련 주요 사항 보고입니다.

- 의장: 회순에 따라 등급분류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사무국장: 배부해 드린 안전자료 4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크골프 및 필드골프 등급분류와 관련된 주요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 관련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18일 대전협회 사무실에서 파크골프 등급분류규정개정 협의회 1차 회의를 진행하였고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목의 확장성을 위해 현재 스탠딩 3개 등급을 4개 등급으로 조정하여 PGST4 등급 신설하기로 논의했고, ▶스탠딩 등급 중 절단장애에 한하여 최소장애 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안전자료 45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기타 지체 장애 및 뇌병변장애 유형에 대한 등급기준을 의료진과 논의하여 등급분류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규정 개정에는 필요한 의료진의 검토 및 자문 비용 등과 같은 예산은 중앙협회 자체 예산을 사용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각 시도지부에서 예산을 중앙협회로 지원해주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규정 개정을 위한 의료진을 섭외하기 위해 필드골프 등급분류 규정 개발에 참여하신 박지웅 교수님께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고 요청을 드렸는데 검토해 보겠다고 하신 상황이고 아직 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정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상반기 중에 파크골프 등급분류 규정 개정과 새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 각 시도선수의 등급분류 평가를 진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필드골프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16일 대전에서 필드골프 선수 60명의 등급분류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작년에 평가를 받지 못한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선수를 대상으로 오는 2월 24일에 서울에서 등급분류평가를 한 번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파크골프 및 필드골프 등급분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 의장: 등급분류 관련 사항 보고와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등급 분류에 대해서 이사회에서도 많은 시간에 걸쳐서 논의했습니다. 등록 분류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회장단에서도 관심을 갖고 의견을 논의해주실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 류영수 회장(인천): 지금 우리가 이제 골프 등급 분류를 하는데요. 우리 병명이 절단장애, 소아마비 이렇게 지금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신중히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골프는 18홀을 도는데 약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선수가 거기 도는데 어떤 체력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 갖고 해야지 이 병명만 갖고 하다 보면은 좀 안이한 등급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아마비는 잘 걸어다녀 근데 그 자체가 틀리다는 겁니다. 의족하고 발목 절단된 사람하고 무릎 부위에 절단된 사람하고 또 그것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신중히 의사가 결정할 때 대학 교수 정도로 지식이 높고 많은데 장애인들을 데리고 등급 분류를 할 때 장애인들이 내가 왜 이렇게 되는데 이 등급 받아야 되냐는 질문을 하면은 그걸 잘 설명을 해야지 1등급을 받으려면 기어다녀야 된다. 그 의사가 배운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우리 장애인을 모독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 선인태 회장(전북): 제가 한 말씀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의견 같은데요. 매번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우리 이사회에서나 지금 대의원총회에서나 참 귀중하고 좋은 의견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의견들을 어떻게 모아서 한마디로 등급 분류 결정을 내리는 의사분들에게 이 의견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전달되지 않으니까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요 시도 회장님들 그리고 이사님들 계시지만은 우리가 대회 때 만나서

의견을 나누는데 그 의견이 전체의 의견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로 걸돌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 회장님께서  
올해 간담회 형식이라도 자주 이런 의견들을 좀 모아서 한꺼번에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회와 장소를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이사회에서도 그걸 논의를 했지만 이번에 한번 2월 내지 3월쯤에 전국의 회장단하고 사무국장하고 같이 1박 2일로 일정을 잡고 논의해서 PGST4 등급도 그렇고 등급분류 관련된 사항을 아예 뿌리를 뽑고 싶습니다.
- 최정수 회장(제주): 아까 류영수 회장님이 말씀한 사항과 선인태 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좀 섞였습니다. 그렇죠? 아까 류영수 회장님은 필드골프를 얘기를 하셨는데 선인태 회장님은 파크골프 관련 내용으로 넘어왔어요. 저도 이제 제주도 선수들 7명 8명이 필드골프 등급분류를 받았는데 의아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이거 등급분류 받고 보니까 이 사람 등급이 1이라고 생각되는데 3이 나왔네 하는 이런 의문점이 있긴 있는데 지금은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1차 등급분류를 60명을 진행을 했고 2차 등급분류도 동일하게 진행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류영수 회장(인천): 우리가 이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데 처음에 몇 사람이 받았다고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가버리면은 또 계속 피해자가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으면은 다시 우리가 논의를 해서 잘 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무국장: 지금 필드골프 등급을 조정해서 2월에 진행되는 선수 등급분류심사에 새로운 등급분류 규정을 적용하여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당초 계획은 작년 12월에 모든 필드골프 선수에 대한 등급분류 심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대상 인원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등급분류 규정 개발에 참여한 교수들도 이야기 하는 것이 100% 완벽한 등급분류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이번에 등급분류를 하고 나면 일정부분 보완사항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중앙에서 교수진들과 논의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등급분류 규정을 만들 때도 원래는 스탠딩 등급이 3개였던 것을 시도지부 설명회를 하면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4개 등급으로 조정해달라고 교수진께 요청한 것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중앙에서 설명회를 3회 정도 권역별로 진행을 했는데 시도에서도 그때 오셔서 의견들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는데 설명회 할 때 전체 인원이 10명도 채 안 오셔서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 류영수 회장(인천): 한 가 지 만 더 말 씀 드 릴 게 요. 제 가 의사하고 등급분류에 대해서 한참 한 30분 정도 얘기했어요. 전문 의사하고. 전문 의사도 자기가 볼 때 서류상으로만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이거야 자기도 책자 갖다 놓고. 그런데 여기에 정확히 된다 안 된다 이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도 등급을 받으러 오시는 분이 조금 이렇게 하면은 될 수도 있으니까 좋은 게 좋다 해서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등급분류를 확실하게 우리 협회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거지 결국은 중앙에서. 그래서 의사들한테 요청을 해야지 의사는 그 책자에 나온 거 가지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와서 해달라고 하면은 그거 굳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안 된다고 할 필요성은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발전성을 가지려면 우리 중앙에서 등급분류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뽑혀서 1차 거기서 검증을 끝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최정수 회장(제주) : 예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필드골프가 지금 한꺼번에 등급분류를 다 해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게 나중에 특수성이 가해져야 되고 2차로 하는 거는 1차와 똑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에서 이 등급분류를 돈을 들여서 했고 설명회를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군데 가고 했는데 어차피 좀 한번 진행해 보면 형평성이 좀 떨어지고 해서 이것도 국내용이고요. 또 세계 대회도 겨냥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드는 어차피 2차는 1차하고 똑같이 해야 하고 제가 좀 우려되는 거는 파크골프도 이제 PGST4 까지 나와서 이 분류표를 정확하게 좀 P1, P2, P3 경계를 좀 줄여서 그 다음에 병원도 이제 한 곳에 잘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다시 한 번 해서 선수가 최선을 다해서 좀 잘 치는데 왜 저 선수가 P1이냐 이런 소리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파크골프는 아까 설명했듯이 제대로 빨리 진행을 하시고요. 필드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1차를 했기 때문에 2차를 하고 다음에 거기에 문제점을 가지고 올해 연내에 다시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 만든 등급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 류영수 회장(인천) : 등급 가지고 작년에도 제가 제안드린 것이 아까 말씀대로 의사들은 서류만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실무자들은 그런 운동 능력까지도 본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를 더 거쳐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건의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준 등급을 바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등급을 한 번 더 거쳤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좀 드립니다. 중앙에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체력이라든가 이 사람은 의사가 볼 때는 P3이지만 실질적으로는 P1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사는 아까 말씀대로 페이퍼만 보고 그냥 그것만 왔다 갔다 해서 등급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면 그게 아니거든요. 실질적 운동 능력 이런 거 보면 그래서 한 단계를 더 거쳐서 등급분류를 좀 확장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 선인태 회장(전북) : 위원회에서 이 내부 실정을 제일 잘 아시는 홍동화 회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 홍동화 회장(경북) : 우리 장애인이 아까 류영수 회장님 말처럼 지체, 뇌변변 장애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장애 종류도 많고 부위도 다르고 특성도 다 다릅니다. 이것을 갖다가 3등급 4등급 나누면은 중간에 겹쳐지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달라요. 그런데 그 개별적인 거 전부 다 등급 주려고 그러면 규정에 맡겨줘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줄 수 있는 게 휠체어 빼고 지체 및 뇌병변 등급은 스탠딩에서 3개 등급밖에 못 줘요. 그러면 이 수많은 장애 유형이 있는 걸 갖다가 3등급으로 나누면 어떤 사람은 다리를 보고 어떤 사람은 팔을 보는데 그게 각자의 입장에서 봐도 저 사람은 팔을 보니 보니까 1등급이야 다리를 보면 3등급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한 가지로 묶는 게 등급분류 기준입니다. 그 기준을 사람이 만듭니다. 사람이 만들다 보면 조금씩 다 다른데 힘도 그래요. 팔 검사를 합니다. 어제는 내가 팔 근육이 이렇게 상태가 좋아서 힘이 좋았는데 검사한 당일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모든 것을 다 감안해서 등급을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1등급에 절단 기준을 해놓고 2등급에도 절단 기준을 정해 놓으면 그것은 구별할 수가 있어요. 뇌병변 쪽은 더 심한데 뇌병변 상태는 우리가 보는 거하고 운동 능력하고 참 다릅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이 적습니다. 아무리 의사라도 그걸 3개 등급에 딱 맞게 못 적습니다. 그거는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내가 봐서는 그 사람 P3야 그런데 P1 받았어 그걸 갖고 의사를 공격하고 규정을 공격하고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돼요. 우리가 규정이 잘못된 건 따질 수 있지만 판정이 잘못됐다 하는 것은 공식적 경로를 통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뒷담화로 자꾸 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 조직에 결코 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등급분류 아까 체력도 말씀하셨는데 체력 등급분류라 카는 거는 큰 기준에서 보는 거지 이 세세한 것까지 다 못 봐요. 세세한 것까지 다 보려고 그러면은 등급을 진짜 한 100개 200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등급이 있는 걸 4등급으로 늘리는 것도 이렇게 어렵습니다. 체육회도 거쳐야 되고 내부적인 토의도 거쳐야 되고. 그래서 4등급 안에 다 넣기 때문에 중복되는 분들 겹치는 부분들 어떤 사람이 P1이고 어떤 사람은 P3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거를 갖다가 의사 한 사람이 해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도 오늘 사람 상태가 피곤한 상태인데 내일 보니 어제와 다른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기계는 길이 재고 무게만 달아서 하면 되지만 사람은 종합적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등급분류 기준에 대해서 내가 봐서는 P3다 P2다 근데 왜 그거 줬노 이거는 공식적인 경기 중에서 항의는 할 수 있으나 평소에 선수를 앞에 둔다거나 상대방 팀을 앞에 둔다거나 이럴 때는 그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느 병원에 가니까 어떻더라 어느 병원보다 어떻더라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등급 주시는 의사분들이 우리 서류에 나와 있는 항목을 보고 정한 거지 그렇죠 규정을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무조건 틀렸다고 그러면. 우리가 전체 분위기가 그래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마음에 안 들면 틀린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공식적인 경로에서는 하되 사적인 자리에서는 안 해줬으면 좋겠다. 결국은 의사들도 만나고 우리 또 우리 선수들 또 지도자들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오늘 같은 이런 토의 과정을 거쳐서 할 거니까 그건 저는 염려가 안 됩니다. 염려가 되는 것은 겹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봐도 오늘 P1 이었는데 내일 보니까 P2도 나올 수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인정했으면 싶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류영수 회장(인천) : 그러니까 병원으로 가기 전에 저희가 등급분류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위원들이 있어서 거기서 한번 재검을 하고 가자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너 몇 급 등급이야 이거 하지 말고 우리가 10명이 가서 받았으면 10명에 대해서 여기 중앙에 있는 등급분류 하시는 분들이 상의해서 의사하고 논의를 어느 정도 하면 어떤가 합니다.
- 홍동화 회장(경북) : 그 말씀하시는 게 우리 등급분류 규정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게 등급분류 위원들이 우리가 훈련받은 위원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못하는 거지 규정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규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앞으로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 의장 : 앞서 이사회에서도 얘기했었고 오늘도 제가 이 등급 분류 논제가 제일 시간이 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해서 3월경에 빠지지 마시고 사무국장하고 시도 회장하고 다 관심 있는 분 해서 1박 2일 정도 모여서 기준을 논의하고 내가 필드 규정에서 아까 인천 회장이 얘기한 걸 생각해 보니까 그게 있어요 테크니컬이라고. 우리 선수 중에서 종목에서 기능적으로 잘 아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항상 들어가는 게 이게 테크니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등급분류 규정 보면 의사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 그 맨 끝에 테크니컬이라는 게 그게 바로 그겁니다. 그게 기능적으로 사람을 보는 거 그게 의사가 보는 게 아니고 그건 우리 전문적인 선수들이 이런 분들이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테크니컬 요원이 등급분류위원회에 있어가지고 사전에 그런 것들 좀 해서 검토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1박 2일로 논의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참여해 주시면 그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기타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 대의원: 동의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무국장: 다음은 보고사항 제6호, 장애인파크골프 전국대회 승인 관련 사항 보고입니다.
- 의장: 회순에 따라 장애인파크골프 전국대회 승인 관련 사항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사무국장: 배부해 드린 안전자료 4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3년 12월 18일 등급분류규정 개정 협의회 회의 때 장애인파크골프 전국대회의 질 향상을 위해 대회승인 요건을 확립하여 중앙협회의 승인을 받아 대회를 개최토록 하자는 의견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전국대회 개최를 위한 중앙협회의 승인 요건(안)은 안전자료 46쪽의 내용과 별도로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애인파크골프 전국대회 승인 관련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립니다.
- 의장: 장애인파크골프 전국대회 승인 관련 사항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방대회는 충남이 보령대회하고 당진대회가 전국대회라고 올라와요. 보령대회는 요건이 다 거기 맞는데 지금 당진대회 같은 게 애매해서 앞으로는 이 요건을 맞춰야만이 전국대회로 승인할 거니까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경남도 진주시장배 대회도 있는데 그것도 전국적인 규모가 항상 올라오는데 그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 그 밖에는 경북은 경주 시장배대회가 전국대회라고 쓰고 있죠.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 대회들을 승인요건을 정해서 앞으로는 좀 강화하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요건에 맞춰서 시도 지부장님들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 선인태 회장(전북) : 지금 전국대회에 대해서 의견이 나와서 저도 이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북특별자치도지사배를 올해 1회를 진행을 할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나면은 각 시도에서 지금 전국대회 규모의 대회를 속속 만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시군에서 먼저 대회를 만들어가지고 시군에서 큰 대회로 성장하는 계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시도 시군에서도 대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경기도 회장님 계시지만 경기도도 31개인데 30개 지부가 다 있죠. 여기들 지부가 거의 지금 대회가 다 있어요. 그럼 타 시도 대회하고도 많이 겹칩니다. 한마디로 큰 대회하고도 많이 겹칩니다. 그런데 시군 대회가 먼저 출발을 해가지고 그 시군 대회도 만만치 않아요. 그럼 서로 겹치면 우리 중앙에서 과연 어디 어디에 힘을 실어줄 것인가. 매우 심각한 부분입니다. 저도 이제 작년에 간접적으로 겪은 일이지만 시군에서 좀 오래된 대회는 그걸 무시하려고 그래요. 그냥 독단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이런 부분이 왕왕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소식도 듣고. 그리고 우리 협회장님들 여기 다 계시고 우리 중앙회 대의원 총회이니만큼 제가 분명하고 단호하게 의견 좀 드리고 싶고 여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전국대의 규모 규모를 중앙협회에서 승인받지 않는 대회는 우리 스스로 여기 협회장님 스스로 그 대회는 자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시도를 시도 협의회를 끌고 가지 물에 물 탄듯 나하고 좀 친분 좀 있어가지고 옆에 붙어 있어 시도가 나가기 편해 선수가 간다고 그래 그래서 그걸 묵인하고 하다 보면 우리 중앙회부터 시도협회는 기강이 흔들려서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올해 만약에 이게 어떻게 귀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향후 이 부분이 조정이 돼서 안정화될 수 있게 시도협회장님들도 심각하게 숙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네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대의원: 없습니다.
- 의장: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사무국장: 다음은 회순에 따라 회장님께서 심의안건 제1호를 상정하시겠습니다.
- 의장: 심의안건 제1호인 2023년 사업 결과 및 결산 자료 심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장: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안건자료 49쪽입니다. 2023년 사업결과 및 결산자료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도 사업결과 및 세입, 세출에 대한 결산보고입니다. 먼저 주요 사업추진결과 입니다. 2023년에는 4개의 종목통합대회에 3,600만원, 1개의 생활체육 대회에 1,900만원의 기금을 지원하였고 전국체전 경기운영, 심판피복제작, 체전연계심판강습회사업에 1,278만원의 지방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종목통합대회는 지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3월 경북 경산에서 진행한 하모니 필드골프대회에 550만원,
  - (2) 6월 경북 경산에서 진행한 경북도지사배대회대회에 500만원,
  - (3) 10월 전남 영암에서 진행한 협회장배대회에 1275만원,
  - (4) 11월 광주광역시에서 진행한 최강자전 대회에 1,27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생활체육대회는 골프존과 함께 진행하였으며 체육회 기금 1,900만원을 지원하여, 2일간 80여명의 선수가 참여한 가운데 스크린골프와 필드골프를 진행하였습니다. 종목 통합대회, 생활체육대회, 전국체전 사업결과는 안전자료 57쪽부터 62쪽에 나온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에는 지도자, 심판, 등급분류에 대한 전문인력양성 사업 역시 다양하게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에 이어 파크골프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실기 및 구술 검정 사업에 495만 7천원의 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6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충남 보령에서 119명의 응시생을 대상을 검정을 진행하였고 69명이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2023년 8월에는 3급 심판 신규 및 보수교육을 대전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전액 참가비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12월 15일과 16일 이틀간 대전에서 60여명의 필드골프 선수의 등급분류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체전기간 중에 진행한 파크골프 선수에 대한 관찰평가 결과보고회를 진행하여 2023년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전문인력양성 사업결과는 안전자료 63쪽부터 66쪽에 나온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3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은 69쪽부터 74쪽의 자료와 별첨으로 배부드린 인쇄자료 및 공인회계사의 결산서 검토보고서와 행정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호 안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의장: 사무국장이 심의 안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영수 회장(인천): 지금 여기 보면 이사회비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사회 회비가 수입이 97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사하고 이게 전부 다 임원 회비인가요?
- 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 류영수 회장(인천) : 그러면 부회장이 몇 명이고 이사가 몇 명인 거예요? 작년 기준으로
- 사무국장 : 2023년도 이사진은 15명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회장 그리고 부회장 2명, 이사가 12명입니다. 이사회비 같은 경우는 부회장이 100만원 이사는 50만원 인데 17개 시도지부에서 대의원이나 임원직을 맡고 계신 분들은 부회장 50만원, 이사 30만원 이렇게 받습니다.
- 류영수 회장(인천) :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총 예산에 포함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체육회에서 나오는 예산만 갖고 지금 운영이 되는데 이게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체육회에서 나오는 예산이 적으면 우리 중앙회 회장님이 얼마만큼 노력해서 예산을 많이 끌어오면은 예산이 높아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시도 회장님들도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하고 선거 때 우리 회장님이 분명히 대한장애인골프협회를 위해서 희생을 하시겠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주는 돈만 갖고 운영할 것 같으면 왜 우리가 번거롭게 투표하고 합니까? 시간 뺏겨가면서. 우리 중앙회를 발전 시키기 위해서 투표를 하고 회장을 선임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협회가 앞으로 계속 갈수록 좀 발전성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발전성이 없고 떨어지잖아요. 이거는 우리 송태섭 회장님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도 회장님들도 다 이걸 반성해야 할 문제예요.
- 의장 : 서두에 얘기했지만 3,600만원 예산은 받는 예산이지만 더 이상 체육회에서 나올 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사분들하고 회장단하고 전에 있는 재임하는 이사 임원들은 회비 안 낸 분은 없습니다.

- 류영수 회장(인천) :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경기도 회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문체부 장관님을 붙들던 대통령 비서실을 붙들던 찬조금이 중앙에 좀 들어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총 예산에 올라가잖아요.
- 의장 : 그게 무슨 말인지 아는데 시도 회장들한테 뭐 돈 내라 달 내라 하는 것도 없고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얘기를 안 드렸고.
- 류영수 회장(인천) : 시도 회장님 역시 똑같이 우리가 반성해야 한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수장을 뽑을 때는 신중하게 뽑아야 된다 이거예요. 결국은 협회가 발전하려면 우리가 국가의 대통령을 뽑듯이.
- 의장 : 그게 그래요. 우리 가맹단체가 지금 어느 가맹단체 회장은 3천만원 낸다 그러고 3년 동안에 100만 원도 안 낸 단체가 있고 그런 단체가 있어요 있는데 그건 얼마든지 내겠다는 건 누구한테나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내면 어떻게 할 거냐 법적으로 제재할 게 없잖아요. 그런 말은 예산에 대한 말은 회장이 능력이 없어서 못 내면 더 못 내는 거고 재벌 가문에는 회장이 내지 말래도 천만 원 내고 2천만 원 내고 내겠지 그거는 능력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내 능력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회장 하는 동안에 내 능력만큼 회비를 내는 거고 이사들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으면 이사들을 더 충원해서 예산을 다 가져오는 건데 이번에도 마지막 임기인데 사임한 사람이 두 사람이고 들어오시는 분이 5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개인 회장의 능력이라고 하신 것은 맞습니다. 맞아요. 맞는 거고 그렇게 예산 가지고 얼마 내겠다 얼마 내겠다 하는 것은 그건 하나의 그건 말이고 말만 하는 거고 그런 회장을 믿는 사람들도 어리석은 사람들인데 여기 대의원 중에서 어리석은 사람들 없어요. 그거 갖고 나 선거할 때 그랬다면 아마 류영수 회장을 뽑아줬겠지. 여기 회장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그건 이해합니다. 하여튼 다른 의견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 최용화 회장(경기): 예 제가 또 한 말씀 드리죠. 제가 알기로는 부회장 100만원, 이사 50만원인데 당연직으로 계시는 분은 이제 반으로 내는데 지난번에 이 일반 임원이 있고 우리가 이제 시도회장들이나 이런 분들의 비율은 맞죠 얼마 이상은 또 100% 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 사무국장: 대의원의 임원 참여는 가능한데 재적이사의 3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 최용화 회장(경기): 예 그거는 맞는 걸로 전부 다 시도회장이나 이런 전무들이 임원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총회인지 이사회인지 구분도 안 가고 하는데 그거는 맞는 것 같고요. 지금 보면 벌써 총회에서 의결 심의냐 보고 안건이냐를 제가 일반 장애인 단체하고 맨날 헛갈려서. 전년도 거를 이제 심의하는 거고 올해 거를 보고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장애인 단체하고는 좀 틀려서 좀 헛갈리긴 한데, 이 이월되는 잔액이 1,400만원 정도 되는 건데. 이게 잔액이 이렇게 넘어가고도 사실은 우리 흥동화 회장님 있지만 등급분류를 하는데 돈이 2천만 원이 들지 3천만 원이 들지 모르는데 사실은 좀 급히 해야되니까 그때 회의할 때도 자부담으로 하고 모자라면 시도에서 십시일반 해서 할 거는 빨리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돈을 얼마나 내놓고 안 내놓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뭔가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모자랐다고 하면 아마 이사회에서도 아마 추가로 아마 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넘어가는데 확실하게 매년 이렇게 비슷하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강약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류영수 회장(인천) :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 사항인데 우리 회장님들도 중앙에 이사를 겸임한다고 그래서 이 의무금을 깎아주고 그러면 여기 회장님들은 이사로 선임되는 분은 여기 대의원 자격으로 참석할 자격이 없어요. 이거는 이미 이사회에서 거쳐가지고 와요. 그럼 이사회에서 다 이거 거쳐서 오는데 여기 대의원 자격으로 왜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선인태 회장(전북) : 회장님이 조금 그 부분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이제 취지가 왜 그러냐 아니 그러니까 원래 제가 답변할 부분은 아닌데 제가 지금 올해 9년인가 10년인가요? 회장을 하고 있어요 대의원을. 여러 회장님이 거쳐 가고 여러 이사회를 거치고 전에는 제가 말이 많아서 끼지도 못했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 대의원들이 왜 이사회에 들어가냐 왜 지금 정관에서도 그걸 허락하냐 대의원들이 이사회하고 완전 분리가 되면 이사회는 안 살림을 하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대의원 중에 일부가 가서 이사들도 좀 알고 대의원들과 소통해라라는 뜻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감액해주는 거예요. 취지가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 최용화 회장(경기) : 예 모든 단체는 다 그렇게 합니다.
- 류영수 회장(인천) : 저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직책금은 두 개를 맡고 있으면 제일 높은 거 하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직책금을 3개를 맡아요.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이렇게 맡으면 저는 300만 원짜리 하나 내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조직은 오히려 깎아주네.

- 의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대의원: 없습니다.
- 의장: 네 그럼 대한장애인골프협회 2023년 사업 결과 및 결산에 대해 의결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무국장: 다음은 회순에 따라 회장님께서 심의안건 제2호를 상정하시겠습니다.
- 의장: 심의안건 제2호인 대한장애인골프협회 임원 선임 권한 회장 위임 건 심의를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장: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안건자료 75쪽입니다. 대한장애인골프협회 정관 제10조에 의거 임원 선임 권한 회장 위임에 대해 승인을 받고자 본 안건을 부의합니다. 안건자료 75쪽의 정관 발췌본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의장: 사무국장이 심의안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의원: 없습니다.

- 의장: 대의원들께서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임원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하는 건에 대해 의결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장: 이제 준비된 안건은 다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의원: 없습니다.
- 의장: 네 그럼 이상으로 2024년 대한장애인골프협회 제1차 대의원총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장: 멀리서 이른 아침부터 오셔서 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각 시군지부마다 시도지부마다 더 발전되길 바라고 회장님도 건강하시고 저는 회장을 한 4년 동안 하는 동안에 건강이 무척 악화 됐습니다. 1년 하고 그만둘까 2년 하고 그만둘까 3년 4년째 됐는데 올해도 진짜 못마칠 것 같아서 사임하려고 했는데 하도 전임 회장들이 임기를 못 마쳐서 죽으나 사나 내가 골프에서 죽어도 올해 마치자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다들 건강하시고 저 역시 올해 마지막 전국체전도 또 아래쪽에 있어서 무척 힘들 것 같지만 올해도 하여튼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회장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 또 건강하시고 하여튼 가는 길 조심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사무국장: 참석해주신 대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가시기 전에 다 같이 모여서 기념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